감기 기승…직장·학교마다 "콜록"

고열·몸살·인후통·근육통 동반

질병관리본부 "독감 유행" 경고

회사원 최모(40·광주시 동구 금남로)씨는 지난주 40도에 육박하는 고열과 기침·인후통 때문에 이틀간 결근했다. 최씨는 "직장에서 2~3명이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전체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며 "전체 직원 중 60% 이상이 감기로 고생해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연말 송년회에 바쁜 직장인들은 '인후통'으로 인해 1차 후 2차 노래방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면 기관지 점막이 자극돼 통증이 오기 때문이다. 망년회 등 모임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광주 H중 1년 정모(13)양은 최근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틀간 결석해야 했다. 몸살·기침이 겹쳐 걷기도 힘들었다. 시험공부도 제대로 못해 평균 점수가 뚝 떨어져 울상이다. 이 학교의 경우 기말고사 직전 유행하기 시작한 감기를 앓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10점대 가까이 하락했다.

겨울의 불청객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감기는 고열과 몸살·인후통·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 속편한내과 허광식 원장은 "하루 60~70여 명의 환자가 고열과 근육통 등 감기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다"고 말했다.

증상이 이토록 심해지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독감이 유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인후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12월 첫째 주 1천 명 당 2.06명에서 둘째 주 1천 명 당 2.59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상이 '독감'과 비슷하다고 해도 '감기'와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 자체가 달라 예방 접종으로 미리 막을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광주 서구보건소 박향 소장은 "아직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 광주에서 발현했다는 보고는 없다"며 "위생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생활 속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광주 속편한내과 허 원장도 "감기를 피하려면 차고 건조하고 먼지 있는 장소를 피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며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손발을 자주 씻고, 가습기를 머리 맡에 두고 자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임동 성당에서는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가 최창무 대주교 집전으로 열렸다. 자리를 가득 메운 신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휘청거린 성탄절

조선족 3명 사망 등 사고 잇따라

성탄절을 전후, 흥청대는 기분에 휩싸여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5일 새벽 1시50분께 목포시 옥암동 전남도청 앞 지하도로에서 91저 89××호 1t 봉고 더블캡 화물차(운전자 김모·34)가 지하도 출구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문모(29)씨 등 조선족 3명이 숨졌고, 리모(36·조선족)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영암군 K건설 노무자인 이들은 성탄 이브인 24일 밤 목포 시내에서 모임을 가진 뒤, 영암의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성탄 이브인 지난 24일 밤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노모(43)씨는 "경기도 안좋은데 성탄절 행사를 위해 교회에 갔느냐" 며 부인(39)과 아들(17)을 입간판으로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날 오후 4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S편의점 앞에서 별거 중인 아내 안모(31)씨의 뺨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김모(36·광주시 북구 연제동·무직)씨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아들(5)과 딸(3)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집에 찾아오자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마트 화장실서 돈뺏고 폭행

신고 못하게 발가벗기기도

북부경찰 10대 3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귀가하는 중학생을 협박, 돈을 빼앗은 S(16·중퇴)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16·고 1년)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H마트 1층 남자화장실에서 K(14·중 1년)군을 폭행하고 신고를 못하게 발가벗긴 뒤, 옷·시계·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18일부터 3회에 걸쳐 34만5천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S군 등은 빼앗은 옷을 서로 나눠 입고 다니다가, 지난 24일 오전 11시30분께 북구 두암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모와 함께 등산길에 나선 K군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국 '주먹들' 광주에?

'대부' 자녀 결혼식에 참석

경찰, 식장 형사 배치 검토

전국의 '주먹'들이 광주에 모일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먹계 대부'로 알려진 A모씨의 자녀 결혼식이 이번 주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한때 광주·전남 최대 폭력조직을 이끌면서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한 '거물'.

경찰은 결혼식에 서울·부산을 비롯한 국내 조직은 물론 일본의 '야쿠자'까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폭은 같은 '패밀리'가 아니거나 경쟁상대라고 하더라도 애경사엔 서로 참석해 위로나 축하하면서 '의리'와 '결속'을 보여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무엇보다 최소 600여 대의 고급 승용차가 예식장 주변에 몰려들면서 인근 교통이 큰 혼잡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식장 주변의 주차장은 1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지역 2개 경찰서 병력과 광역수사대를 식장 안팎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경사스런 날에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미국 원정 성매매 노린

불법 비자 무더기 적발

미국 유흥업소 진출 등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은 25일 유흥업소 여성 등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주한 미 대사관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K(여·28)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9월부터 1인당 400만원씩 받고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500여 명에게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재직증명서·호적등본 등을 구해주고 인터뷰 요령을 교육시켜 240명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 의뢰인 중에는 LA·뉴욕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3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나원참 〈7011〉 김종두

남규리 동영상 유포자 수사 의뢰

쌍나팔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측은 공연도중 가슴이 노출된 멤버 남규리〈사진〉의 동영상을 무단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5일 설명.

○…남규리는 지난 23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빅4콘서트'에서 격렬한 춤 동작을 선보이던 중 의상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오른쪽 가슴이 노출됐던 것.

○…남규리 가슴 노출 동영상은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급속히 유포. /연합뉴스